

2022학년도

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

▣ 일 자 : 2022. 7. 14.(목) 오후 1시 30분

▣ 장 소 : 양캠퍼스 대회의실[화상회의]

결 재	간 사	의 장

명 지 대 학 교

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■ 일 시 : 2022. 7. 14.(목) 13:30 ~ 14:05

■ 장 소 : 양캠퍼스 대회의실[화상회의]

■ 참석평의원 : 김진환, 이상현, 최현선, 김용달, 이대욱, 최정현, 엄세빈, 이순식
(이상 8명)

■ 불참평의원 : 이정현, 변상범, 유석희(이상 3명)

■ 성 원 : 재적평의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됨.

■ 안 건 :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■ 심의내용

- 김진환 의장 : 평의원들에게 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, 간사에게 회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
- 간 사
 - 교육부의 행정처분 확정 통지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3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5% 감축하기 위한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함
 - 입학정원 5%를 감축하기 위한 진행과정,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부연 설명함
- 김진환 의장 : 간사의 안건 설명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함
- 김용달 평의원 : 정원을 감축하는 현상황이 안타까우며, 감축 내용중 자연캠퍼스만 정원을 감축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
- 간 사 : 전문대와외의 통합시 전문대 정원에 대한 자연캠퍼스 이동 가능성 및 자연캠퍼스학과의 인문캠퍼스 이동 가능성을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캠퍼스 정원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학·실·처장회의 등을 통해 논의되어 감축하게 되었음을 설명함
- 김용달 평의원 : 교육부로부터 우리 대학 유예 요청에 대한 불가 통보를 6월 30일 받고 교무위원회를 7월 11일 개최하여 학칙 개정(안)을 의결하였는데 통보부터 의결까지의 짧은 시간안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설명을 요청함
- 간 사
 - 정원 감축(안)이 짧은 시간내에 결정된 건 아니며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이후 단과대 학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
 - 교육부 유예 불가 통보이후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학칙 개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칙 개정을 진행하여 왔음을 설명함
- 김용달 평의원 : 대학평의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모인 자

리 이니만큼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요청함

- 김진환 의장 :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칙 개정(안)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평의원들께서는 우리 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
- 엄세빈 평의원 : 우리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자연캠퍼스에서만 감축한다는 내용은 오늘 알게 되었음
- 최정현 평의원 : 감축(안)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지만 자연캠퍼스만 감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견으로 제시함
- 최현선 평의원 : 명지전문대와 통합을 고려한 자연캠퍼스만의 정원 감축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- 이순식 평의원 : 현재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기를 희망함
- 이상현 평의원 : 단과대 회의를 통해 정원 감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들었지만 책임있는 보직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
- 김용달 평의원
 -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 본부에서는 2023년 전문대와 통합을 통해 자연캠퍼스 정원감축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불과 1년을 앞두고 자연캠퍼스만 감축하여 구성원의 분란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
 - 대법원 판결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음
 - 자연캠퍼스 평균등록금이 인문캠퍼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연캠퍼스만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
 - 건축대학은 5년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로 감축한 이유와 향후 통합시 건축대학은 정원은 어떤식으로 조정될지 궁금함
- 이상현 평의원
 -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문캠퍼스 정원을 보존하는 방식은 공감하지만 인문캠퍼스의 모든 학과의 정원을 보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
 - 우리 대학이 10년전 정원 감축시에도 ICT대학을 인문캠퍼스로 이동하는 방식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연캠퍼스만 감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움
 -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도 모든 구성원이 고통분담은 필요한 부분임
- 김진환 의장
 - 금번 정원 감축에 대하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며 대학본부에서는 의견수렴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줄

것을 요청함

- 아울러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오늘은 의결을 유보하고 일주일후 평의원회를 재개최하여 논의하자는 안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의견을 요청함
- 최현선 평의원 : 의장님의 평의원회 재개최 의견에 학교에서는 일정상 개최가 가능한지 간사에게 문의함
- 간 사 : 정원 감축에 대한 후속 절차(입시전형)진행이 긴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평의원회 재개최는 가능하다고 답변함
- 최정현 평의원 : 평의원회 재개최시 책임있는 보직자의 설명이 없으면 회의 개최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참석을 요청함
- 이상현 평의원 : 정원 감축에 대한 내용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배부된 자료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며 회의를 한주 미뤄 책임있는 보직자의 설명을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
- 김진환 의장
 - 평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평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함
 - 또한 재개최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함
- 전체 평의원 : 차주 회의 개최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회의를 종료함

2022. 7. 14.

작 성 자 : 기획예산팀장 안 경 훈

